

진도군, '우리동네 영웅들' 제1호 영웅 선정

청소년과 함께하는 국가유공자 인식개선 사업 추진 6·25 참전유공자 김동명 어르신 직접 취재 영상 제작

진도군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국가유공자 인식개선 사업 '우리동네 영웅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동네 영웅들'은 국가유공자와 보존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을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제1호 영웅으로 김동명(93세, 진도읍) 어르신을 선정하고 6·25 참전유공자로 전쟁 경험담과 전하고 싶은 메시지 등을 지역의 청소년들이 직접 어르신을 방문해 취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우리동네 영웅들'을 취재하는 석교중학교

학생 취재단은 ▲전쟁 때 기억에 남는 사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어전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등의 주제로 취재를 이어갔다.

이날 진행된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 제작해 12월 중 진도군 공식 유튜브와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재될 예정이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보존가족을 지역민에게 알리고 보존문화 확산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매달 우리동네 영



영웅들을 발굴해 국가에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예우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온 군민이 함께 축하"

해남군 복일면 갈두마을 10년만에 아이 울음소리

10년만에 마을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마을 곳곳에는 아이탄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걸렸다. 해남군 복일면 갈두마을 이형민, 심은정 부부의 둘째째 아이가 태어난 것.

갈두마을에 10년전 태어난 아이도 이형민, 심은정 부부의 첫째 아들이다.

무려 10년만에 들려온 아이탄생의 기쁨은 마을 사람들 뿐 아니라 복일면 전체가 함께하는 경사이기도 하다. 복일면은 지난 2년간 아이 출생 소식이 없어 이번 아이탄생이 더욱 의미있는 소식이 되고 있다.

해남군에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248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숫자인 216명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민선8기 출산정책의 전면적인 재편을 통해 임신과 출산, 양육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설정하고, 세심한 지원을 펼쳐 온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해남군에서는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낳고 기르기가 좋은 해남 만들기를 군정의 중점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3년부터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2015년 전라남도 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해 운영하는 등 앞서가는 출산정책을 도입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올해는 보육 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어울림센터가 개원, 공공어린이집과 장난감 도서관, 돌봄센터 등이 입주했으며,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을 통해 보육과 교육 기반 마련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명현관 군수도 7일 출산기장을 방문해 최고, 미역 등 출산 축하용품을 전달하고 축하의 기쁨을 함께했다.

명 군수는 부부에게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기를 당부하며 "해남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따뜻한 정책을 펼쳐 아이 낳고 기르기가 좋은 해남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전국 규모대회 유치 '붐물'

유소년 축구경기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만발

강진군이 초등(U12) 동계 페스티벌 축구대회 및 중등 1학년 축구 페스티벌 유치에 이어 전국중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 연속 유치했다고 밝혔다.

매년 11월경 개최되는 전국중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은 전국 64팀 1,500명의 선수들이 열정적인 경기를 펼치는 자리로 어린 선수들에게 축구의 매력을 체험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군은 전국 규모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24년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강진축구전용구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초등(U12) 동계 페스티벌 축구대회'에는 전국 초등(U12) 48개 팀 1,000여 명이 참가해 팀의 명예를 걸고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내년 전국규모 축구대회 추진을 위해 24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인조잔디구장 1면(105m*68m)을 준공하는 등 대회 준비에 한

창이다.

군은 방문하는 선수들과 학부모들에게 최적의 경기 환경 지원을 위해 천연잔디구장을 무리요 개방하고, 구장마다 응급차량 배치를 지원하며, 급수대와 운수기를 설치하고 차와 커피를 준비하는 등 경기 전 빈틈없는 손님맞이를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올 한해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10만 8,998명이 방문했고 100억 1천 4백만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집계했다. 이어 2024년에는 21만 명 방문을 목표로 2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이루어낸다는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국 최고의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강진이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최적지임을 꾸준히 홍보해 더 많은 대회와 전지훈련팀을 강진으로 유치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 천관산, 명품 숲탐방로 심터 '인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중)가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흥군에 위치한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의 숲탐방로 심터를 소개했다.

천관산자연휴양림 숲탐방로는 새소리, 물소리 등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는 1.7km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숲탐방로 중간에는 고향의 향기, 산마루, 네거리, 용담샘 심터를 조성해 천관산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고향 친구들과 함께 천관산자연휴양림을 찾은 정현숙(여 66세)은 "숲탐방로 심터에 들어서면 새들의 연주와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몸과 마음이 힐링된다"며, "오랜만에 고향의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명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2024년에는 천관산자연휴양림 숲탐방로 심터에서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숲탐방로를 지속 관리하여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산림 르네상스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완도군, 7000여 농가에 공익직불금 92억원 순차 지급

13일부터 소농 직불금 57억원 등

완도군은 8일 7000여 농가에 올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 92억원을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농가당 120만원씩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은 4740농가에 57억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2336농가에 35억원을 지급한다.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와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5~20% 감액해 지급한다.

공익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

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쌀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완도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와 필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을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가뭄, 장마, 폭염 등 기상이변과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온 힘을 다해 농업을 이끌어주시는 농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익직불금이 농가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